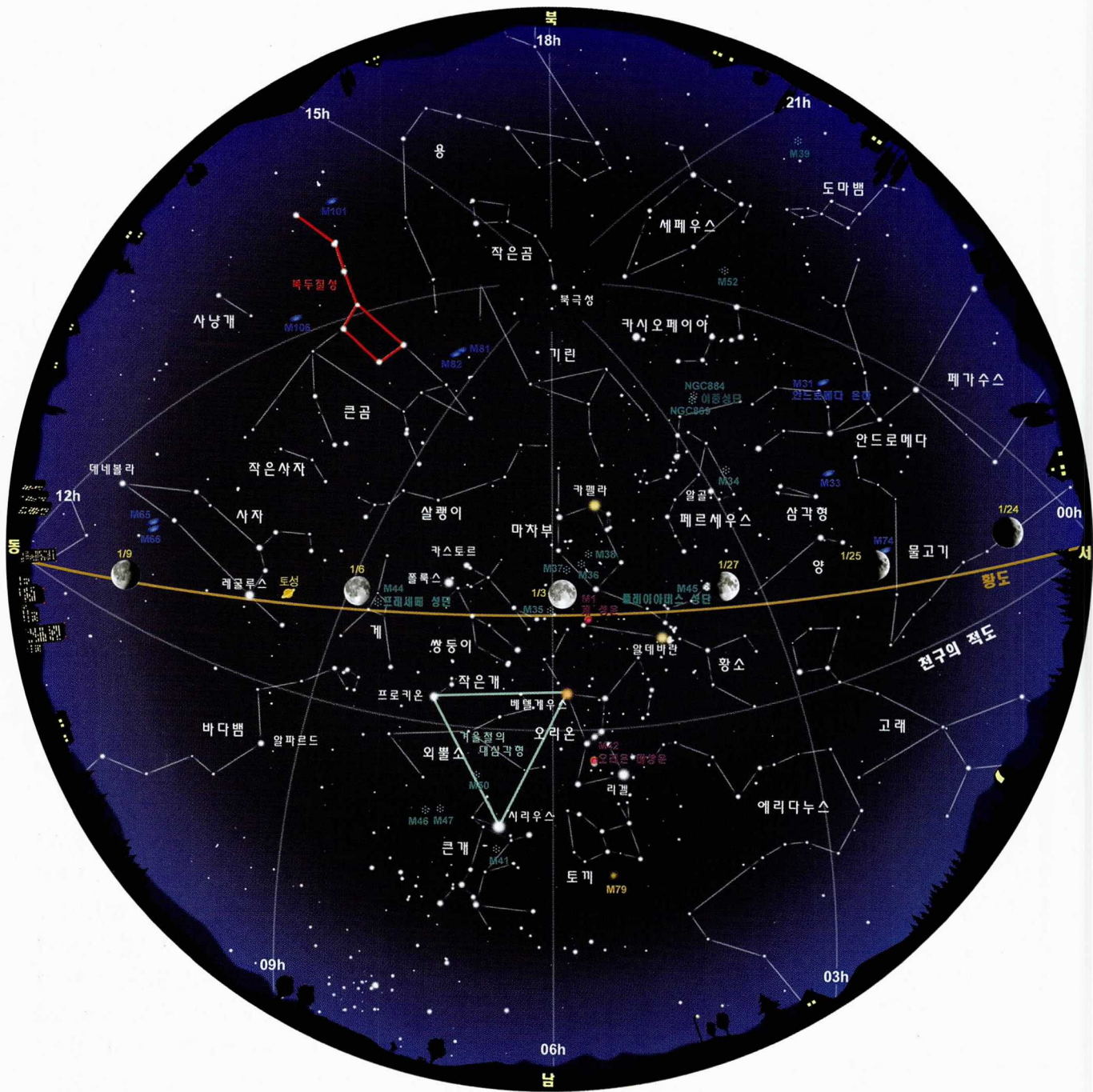


# 1월의 밤하늘



## ※ 성도 사용법

이 성도에는 6.5등급보다 밝은 별과 주요 성운, 성단, 은하, 달, 행성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다. 보통의 지도와 달리 성도에서는 동쪽과 서쪽이 바뀌어 있다. 따라서 밤하늘의 별자리와 비교하고자 할 때에는 성도를 위로 들고 성도면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사용한다.

성도에서 보이는 밤하늘은 1월 1일 0시, 2월 1일 22시 기준이며, 행성의 위치는 1월 1일 0시 기준이다.

성도 범례	
● 1등급	☉ 산개성단
● 2등급	☼ 구상성단
● 3등급	☼ 성운
● 4등급	☼ 은하
● 5등급	
● 6등급	

# 주요 천문 현상

1월	S	M	T	W	T	F	S
3일 22:57 망		1	2	3	4	5	6
4일 05:00 지구 근일점(0.983297AU) 09:30 사분의자리 유성우(ZHR: 120)		●	●	● 망	●	●	●
6일 02:40 소한(태양 황경 285°)	7	8	9	10	11	12	13
7일 15:00 수성 외함	●	●	●	●	● 하현	●	●
11일 21:45 하현	14	15	16	17	18	19	20
17일 21:19 토왕용사(태양 황경 297°)	●	●	●	●	●	●	●
19일 13:01 합삭						합삭	
20일 20:01 대한(태양 황경 300°)	21	22	23	24	25	26	27
26일 08:01 상현	●	●	●	●	●	● 상현	●
	28	29	30	31			
	●	●	●	●			

#ZHR : 6등성까지 보이는 밤하늘과 복사점이 천정에 있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1시간 동안 관측되는 유성의 수. 실제로 한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이보다 적다.

### ☉ 사분의자리 유성우 극대



시간당 최소 40여 개에서 최대 120개 이상의 유성이 떨어지는 사분의자리 유성우는 페르세우스자리 유성우, 쌍둥이자리 유성우와 함께 3대 주요 유성우로 꼽힌다. 사분의자리

는 용자리와 목동자리 중간쯤에 있었던 별자리로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사용해 온 관례에 따라 여전히 사분의자리 유성우로 불리고 있다. 올해 극대 예상 시각은 1월 4일 오전 9시 30분으로 이날 새벽 시간이 관측하기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ZHR은 120이다. 다만 달의 영향으로 밝은 유성만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금성과 토성의 귀환

밤하늘 관측에서 가장 볼만한 천체로 꼽히는 금성과 토성의 계절이 시작됐다. 1년여 동안 새벽 하늘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금성이 저녁 하늘로 돌아왔다. 예로부터 셋별, 태백성, 개밥바라기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금성은 해와 달 다음으로 하늘에서 가장 밝다. 저녁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은 가끔 UFO(미확인비행물체)로 오인 받기도 한다. 이번 달에는 해진 후 고도가 충분히 높지는 않지만, -4등급으로 충분히 밝기 때문에 서쪽 하늘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천체 망원경을 이용하면 달처럼 차고 기우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다.

다른 행성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뚜렷한 고리를 갖고 있는 토성은 단연 최고의 관측 대상이다. 1월 중순이면 밤 10시 무렵에 관측하기에 충분한 고도에 이른다. 그런데 실제 망원경으로 보는 토성은 매우 작다. 사진에서 보아왔던, 크고 멋진 모습을 상상하며 처음 토성을 본 사람들은 작게 보이는 모습에 실망을 하곤 한다. 망원경 속의 토성의 모습은 비록 작게 보이지만, 광활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우주의 신비를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멋진 모습이다. 토성은 오는 2월 11일이 충으로, 이 무렵을 전후로 가장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왼쪽)2002년 3월 20일에 있었던 토성식 때 촬영한 토성과 달 표면의 모습. 실제 망원경으로 보는 토성은 탐사선이 찍은 사진에서처럼 크고 화려하지는 않다. (오른쪽)망원경으로 본 금성의 모습. 달처럼 차고 기우는 위상 변화를 한다.